

시니어 대상 창업교육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계획된 행동이론과 자기결정 이론의 통합모델 중심으로

정찬영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정보경영학과 박사과정)*

이소영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정보경영학과 교수)**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계획된 행동이론과 자기결정 이론의 통합모델을 활용하여 40대와 50대 시니어들의 창업 동기가 창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를 거쳐서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시니어 대상 창업 교육이 유의한 조절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40대, 50대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총 284개의 설문 응답 중 243개의 유효한 설문지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연구분석은 SPSS 24, AMOS 23 구조방정식, 조절효과 분석을 위한 Hayes 교수의 Process 3.4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내적 동기는 창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적 동기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창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는 창업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교육의 조절효과는 창업에 대한 태도가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는 유의한 정(+)의 조절효과가 나타났고, 창업에 대한 주관적 규범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는 유의한 부(-)의 조절효과가 나타난 반면, 창업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가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는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퇴직한 시니어들이 창업에 뛰어들고 있는데, 창업을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를 진단함으로써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시니어 대상 아웃플레이스먼트 프로그램에 재취업 교육 뿐 아니라 창업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시니어들의 퇴직 이후의 인생 이모작 기회를 넓혀주는데 기여할 수 있다.

핵심주제어: 시니어 창업, 계획된 행동이론, 자기결정 이론, 창업 동기, 창업 의도, 창업교육의 효과

I. 서론

최근 몇 년동안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근무했던 40대, 50대 시니어들이 직장에서 퇴직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이들이 창업에 관심을 가지면서 시니어 창업이 활발해지고 있다. 퇴직한 시니어들이 창업에 뛰어들고 있는데, 2019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기준 기업생멸 행정통계'에 따르면 창업 기업의 5년 생존율은 30%정도에 그칠 정도로 창업의 성공확률이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시니어들의 창업 실패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창업 성공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잠재적 창업군의 창업 의도를 반영한 연구 방향이다. 이는 창업을 하고자 하는 동기를 살펴보았을 때 창업을 하는 것이 즐겁고 기쁜 일이어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즉 내적으로 동기(Autonomous Motivation)가 부여되어 창업을 한 사람들은 지속 가능성이 더 높고 성과가 더 좋다고 하는 자기

결정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을 활용한 연구 방향이다. 반면에 가족이나 주변사람들로부터 창업을 하도록 압력을 받아서, 혹은 창업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창업을 하고자 하는 외적 동기(Controlled Motivation)를 가진 경우와 비교했을 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이론적 검증을 통해서 살펴본 연구들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실증적 검증을 통해서, 계획된 행동이론과 자기결정 이론의 통합모델이 창업 동기가 창업 의도로 이행되는 과정에 대한 보완적인 설명을 제공한다는 것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는 창업 의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창업 동기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기여하고, 내적 동기가 창업 의도를 거쳐서 어떻게 창업 기업의 생존과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창업 의도는 창업 행동에 대한 중심적이고 직접적인 예측 변수로 연구되어 왔다(Bird & Jelinek, 1989; Krueger et al., 2000). 이러한 인지적 접근방식으로서

* 주저자,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정보경영학과 박사과정, cychung@korea.ac.kr

** 교신저자,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정보경영학과 교수, claire@hoseo.edu

· 투고일: 2020-04-19 · 1차 수정일: 2020-06-10 · 2차 수정일: 2020-08-07 · 게재확정일: 2020-08-10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은 의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세 가지 변수를 통해서 설명하였다. 행동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들(가족, 친구 등)이 그 행동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믿음에 관한 주관적 규범, 그리고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어렵거나 쉽다고 인지하는 정도에 관한 지각된 행동통제이다.

그러나 계획된 행동이론만으로 창업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설명한 선행연구(do Paço et al., 2011; Liñán et al., 2011; Naktiyok et al., 2010; Shook & Bratianu, 2010; Liñán & Chen, 2009; Souitaris et al., 2007; Kolvereid, 1996a; Krueger et al., 2000; Tkachev & Kolvereid, 1999)에 한계점이 있는데, 계획된 행동이론만으로는 왜 창업 행동을 추구하는지 그 동기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Deci & Ryan, 2000). 이것은 계획된 행동이론이 자유 의지와 진정한 자아를 추구하는 내적 동기(Autonomous Motivation)에 의한 의도와 행동과, 의무감이나 주변 사람들의 압력을 받아서 하게 되는 외적 동기(Controlled Motivation)에 의한 의도와 행동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Fayolle & Liñán(Fayolle et al., 2014; Fayolle & Liñán, 2014)은 계획된 행동이론에 다른 이론을 통합하면 창업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계획된 행동이론의 한계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연구 방향 중 하나가 Deci & Ryan(2000)의 자기결정 이론과의 통합모델이다. 자기결정 이론에서의 내적 동기는 창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를 형성하는데, 그리고 창업 의도를 형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Fayolle et al., 2014). 계획된 행동이론과 자기결정 이론의 통합모델은 건강 분야, 스포츠 분야 등에서 활발히 연구되었으나, 창업 분야에 적용한 선행 연구는 해외에서도 최근에 발표되기 시작했고(Al-Jubari et al., 2019) 국내에서도 시작 단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계획된 행동이론과 자기결정 이론의 통합모델을 창업 분야에 적용하여 이론적,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40대와 50대 시니어 창업에 특화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직장에서 퇴직 후 창업을 희망하고 있는 시니어들의 창업 기업 설립 뿐 아니라 생존과 성공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계획된 행동이론을 통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업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람들의 다양한 행동을 예측할 수 있고, 자기결정 이론을 통하여 내적 동기가 창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거쳐서 창업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창업 분야에서 연구의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는 계획된 행동이론과 자기결정 이론의 통합모델을 적용하여, 건강 분야 등 다른 학문분야에서 검증된 이론이 창업 분야에서도 유의함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둘째, 시니어에 특화된 연구를 통하여 시니어 창업의 성공을 높일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셋째, 시니어 대상 창업교육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역할을

확인하여, 퇴직예정자와 퇴직자들을 위한 효과적이고 차별화된 교육 정책 수립 및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2.1 계획된 행동이론

계획된 행동이론에서는 의도가 인간 행동을 예측한다고 가정한다(Ajzen, 1991). 여기서 의도는 사람이 그 행동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려는 정도이다(Entrialgo & Iglesias, 2016). 행동을 수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사람들은 사전에 계획과 의도를 가지는 경향이 있다(Ajzen, 2002). 즉, 일반적으로 특정 행동에 대한 의도가 강할수록 그 행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Ajzen, 1991). 사람들의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것이 계획된 행동이론을 개발한 주요 목적이다. 의도를 연구한 연구들 중에서 계획된 행동이론은 가장 우수하고 영향력 있는 모델로 평가받는다(Fayolle et al., 2014; Liñán & Fayolle, 2015). 창업 분야 연구에서도 계획된 행동이론 모델은 창업 의도를 더 잘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는 일관된 체계를 제공한다(Krueger et al., 2000).

계획된 행동이론에 의하면, 특정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라는 세 개의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행동에 대한 태도는 해당 행동에 대해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전반적인 평가를 의미한다(Ajzen, 1991). 의도를 형성하기 전에, 사람들은 어떤 행동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평가를 한다.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업하는 등 특정 행동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는 그 행동이 유리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인식될 때 형성된다. 선행연구(Almobaieek & Manolova, 2012; Douglas & Fitzsimmons, 2013; Fitzsimmons & Douglas, 2011; Nabi et al., 2011; Kolvereid, 1996a; Liñán & Chen, 2009; Liñán et al., 2011; Moriano et al., 2012; Tkachev & Kolvereid, 1999)에 의하면 창업에 대한 태도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창업 의도에 일관되고 강한 영향을 미친다.

주관적 규범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업하는 것과 같은 특정 행동을 할 때 혹은 하지 않을 때,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들(가족, 친구 등)이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이다. 일부 연구(Almobaieek & Manolova, 2012; Autio et al., 2001; Krueger et al., 2000; Liñán & Chen, 2009)에서는 창업 의도를 예측하는데 주관적 규범이 가장 약한 예측 변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많은 선행연구(Nabi et al., 2011; Kautonen et al., 2013; Kolvereid, 1996a; Tkachev & Kolvereid, 1999)에서 주관적 규범이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지각된 행동통제는 특정 행동을 하는 것이 어렵거나 쉽다고 인지하는 정도와, 그 행동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지하는 정도(Ajzen, 1991)이다. 지각된 행동통제

점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기결정 이론은 계획된 행동이론과 같은 사회적 인지 이론 구조의 기원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Hagger et al., 2006; Hagger & Chatzisarantis, 2009).

계획된 행동이론과 자기결정 이론의 통합모델은 건강 분야와 스포츠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되었다(Hagger et al., 2006).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계획된 행동이론과 자기결정 이론의 통합모델은 창업 분야에서도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동기 부여 요소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할 수 있다. Hagger & Chatzisarantis(2009)는 이 두 이론이 상호 보완적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계획된 행동이론과 자기결정 이론을 통합한 연구는 창업에 대한 동기와 의도를 이해하는데 좀 더 종합적인 견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2.4 창업교육의 효과

창업교육은 창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자리를 창출해준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창업 교육을 연구한 선행연구(Fernández-Pérez et al., 2019; Liao & Gartner, 2007; Wilson et al., 2007; Rauch & Hulsink, 2015; 김명숙 외, 2013)에서는 창업교육이 창업 의도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계획된 행동이론을 활용하여 창업 교육의 효과를 연구한 선행연구(Shah et al., 2020)에서는 창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창업교육이 조절 역할을 한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Asghar et al.(2019)의 선행연구에서는 창업교육을 받은 그룹과 창업교육을 받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을 때, 창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III.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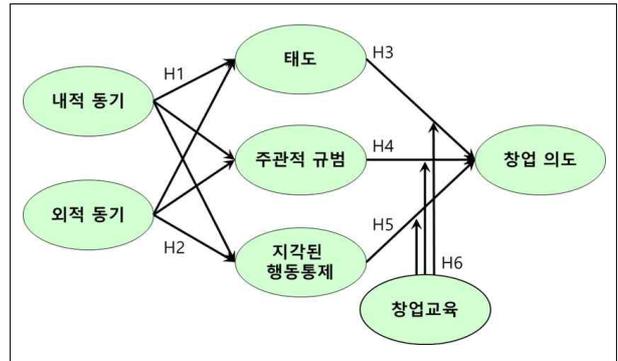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선행연구(Luqman et. al., 2018; Lee et al., 2020; Li & Wu, 2019; Hagger & Chatzisarantis, 2009; 김진희 외, 2019)를 바탕으로 계획된 행동이론과 자기결정 이론의 통합모델을 활용하였다.

계획된 행동이론을 중심으로 시니어들의 창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자기결정 이론을 중심으로 시니어들의 창업에 대한 내적 동기(Autonomous Motivation)가 창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에 영향을 미치지만, 외적 동기(Controlled Motivation)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창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창업교육이 조절 역할을 한다는 것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3.2 가설 설정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H1-1~H5의 총 9개의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선행연구(Luqman et. al., 2018; Lee et al., 2020; Li & Wu, 2019; Hagger & Chatzisarantis, 2009; 김진희 외, 2019)에서 내적 동기는 창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를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래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 H1-1: 내적 동기는 창업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2: 내적 동기는 주관적 규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3: 내적 동기는 지각된 행동통제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반면에 선행연구(Luqman et. al., 2018; Lee et al., 2020; Li & Wu, 2019)에서 외적 동기가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유의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나 김진희 외(2019)의 연구에서는 외적 동기가 창업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유의하지 않으나, 창업에 대한 주관적 규범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시니어들의 경우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래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 H2-1: 외적 동기는 창업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2: 외적 동기는 주관적 규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3: 외적 동기는 지각된 행동통제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선행연구(Fayolle et al., 2006a, Kolvereid, 1996a, Souitaris et al., 2007)에서 창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는 창업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래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H3: 창업 태도는 창업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주관적 규범은 창업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지각된 행동통제는 창업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계획된 행동이론을 연구한 선행연구(Asghar et. al., 2019)에서 창업교육을 받은 그룹과 창업교육을 받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을 때, 창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계획된 행동이론을 활용하여 창업 교육의 효과를 연구한 선행연구(Shah et al., 2020)에서 창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창업교육이 조절 역할을 한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또한 선행연구(김서호·변상해, 2018; 한수진·이종건, 2017)에서 주관적 규범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창업교육이 조절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업교육의 조절역할을

확인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추론하여 아래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H6-1: 창업교육은 창업 태도와 창업 의도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H6-2: 창업교육은 주관적 규범과 창업 의도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H6-3: 창업교육은 지각된 행동통제와 창업 의도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3.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변수는 <표 2>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측정변수들을 검토하여 인용하였다. 창업에 대한 내적 동기는 Li et al.(2016)의 연구에서 사용된 3개 문항을, 창업에 대한 외적 동기는 Li et al.(2016)의 연구에서 사용된 3개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창업에 대한 태도는 Linān & Chen(2009)의 연구에서 사용된 4개 문항을, 창업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García-Rodríguez et al.(2015)의 연구에서 사용된 4개 문항을, 창업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는 García-Rodríguez et al.(2015)의 연구에서 사용된 4개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창업 의도는 Linān & Chen(2009)의 연구에서 사용된 4개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표 2> 연구 변수의 측정항목과 선행연구

연구 변수	측정 항목	선행연구
내적 동기	1-1. 창업을 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1-2. 창업을 하는 것이 재미가 있기 때문에 1-3. 창업을 하는 것이 기쁜 일이기 때문에	Li et al.(2016)
외적 동기	2-1. 다른 사람들이 내가 창업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싫기 때문에 2-2. 내가 창업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3. 가족이나 주변사람들로부터 창업을 하도록 압력을 받기 때문에	Li et al.(2016)
태도	3-1. 창업가가 되는 것이 매우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 3-2. 나에게 창업할 수 있는 기회와 자원이 주어진다면 창업을 하고 싶다. 3-3. 창업가가 되는 것이 나에게 매우 큰 만족감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3-4. 나는 여러 진로 중에서 창업가가 되고 싶다.	Linān & Chen(2009)
주관적 규범	4-1. 나의 가족들은 내가 창업하는 것을 지지해 줄 것이다. 4-2. 나의 동기 혹은 직장동료들은 내가 창업하는 것을 지지해 줄 것이다. 4-3. 나의 부모, 형제나 친한 친구들은 내가 창업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4-4. 내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사람들(예: 직장상사 등)은 내가 창업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García-Rodríguez et al.(2015)
지각된 행동통제	5-1. 창업을 하는 것이 나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5-2. 나는 창업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5-3. 나는 내가 창업을 하는데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 5-4. 나는 창업한 후에 회사 운영을 잘 할 자신감이 있다.	García-Rodríguez et al.(2015)
창업 의도	6-1. 나는 창업을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6-2. 나는 미래에 창업을하기로 결심했다. 6-3. 나는 창업을 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 6-4. 나는 언젠가 창업을 하겠다는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Linān & Chen(2009)
창업교육	7. 귀하는 지금까지 창업교육(예: 중장년 창업강좌 등)을 총 몇시간 이수했습니까? ① 없음 ② 1 ~ 10시간 ③ 11 ~ 20시간 ④ 21 ~ 30시간 ⑤ 31시간 이상	Asghar et. al.(2019)

IV. 분석결과

4.1 표본의 특성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서울, 경기 지역의 40대와 50대의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2020년 2월 19일부터 1개월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284개 설문 응답 중에서 유효한 설문지 243개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가설 검증을 위해서 SPSS 24, AMOS 23 구조방정식, Process 3.4를 활용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과 회귀분석은 AMOS 23을 활용하였다. 조절효과 분석은 Hayes교수가 개발한 Process 3.4를 활용하였다. Process 3.4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이 유의한 경우 조절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Hayes, 2017). 이 방법은 데이터의 정규분포를 가정하지 않고, 조사된 데이터로 다시 한 번 오차 및 신뢰구간을 추정하는 Bootstrapping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조절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장점이 있다(Hayes, 2017).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성별은 남성 61.3%, 여성 38.7%가 설문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는 40대와 50대의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연령은 40대 36.2%, 50대 63.8%가 참여하였다.

<표 3>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 (n=243)	퍼센트	누적 퍼센트
성별	남성	149	61.3	61.3
	여성	94	38.7	100
연령	40대	88	36.2	36.2
	50대	155	63.8	100
학력	고졸	15	6.2	6.2
	대졸	115	47.3	53.5
	대학원이상	113	46.5	100
직업	직장인	107	44.0	44.0
	자영업	46	18.9	63.0
	구직 중	10	4.1	67.1
	주부	28	11.5	78.6
	기타	52	21.4	100.0
창업 교육 이수 시간	없음	103	42.4	42.4
	1~10시간	40	16.5	58.8
	11~20시간	21	8.6	67.5
	21~30시간	19	7.8	75.3
	31시간 이상	60	24.7	100.0

4.2 측정변수의 타당성과 신뢰도 검증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적합도 지수들을 살펴보면 $\chi^2=332.317$, $df=194$, $p=.000$, $\chi^2/df=1.713$, $RMR=.058$,

$RMSEA=.054$, $GFI=.889$, $AGFI=.855$, $NFI=.918$, $CFI=.964$, $TLI=.957$ 로서,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로 판단하였을 때 전체적으로 수용할 만한 수준의 적합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모형에서 측정항목간의 집중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집중타당성의 검증 기준은 표준 요인적재량 0.7이상, 개념신뢰도(C.R.) 0.7이상, 평균분산추출 지수(AVE) 0.5이상으로(우종필, 2012), 전체적으로 집중타당성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각 측정변수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Cronbach α 값을 측정하였고, 결과 값이 모두 0.7이상으로 신뢰도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확인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측정 변수	항목	표준화 계수	C.R.	AVE	Cronbach α
내적 동기	내적 동기1	.912	.921	.795	.933
	내적 동기2	.929			
	내적 동기3	.881			
외적 동기	외적 동기1	.733	.858	.671	.819
	외적 동기2	.896			
	외적 동기3	.716			
태도	태도1	.700	.887	.664	.897
	태도2	.867			
	태도3	.884			
	태도4	.862			
주관적 규범	주관적 규범1	.622	.797	.503	.806
	주관적 규범2	.553			
	주관적 규범3	.876			
	주관적 규범4	.786			
지각된 행동통제	지각된 행동통제1	.587	.784	.482	.813
	지각된 행동통제2	.674			
	지각된 행동통제3	.893			
	지각된 행동통제4	.770			
창업 의도	창업 의도1	.790	.922	.749	.945
	창업 의도2	.940			
	창업 의도3	.940			
	창업 의도4	.937			

$\chi^2=332.317$, $df=194$, $p=.000$, $\chi^2/df=1.713$, $RMR=.058$, $RMSEA=.054$, $GFI=.889$, $AGFI=.855$, $NFI=.918$, $CFI=.964$, $TLI=.957$

집중타당성이 검증된 요인들 간의 판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qrt{AVE} 값을 상관계수값(ρ)과 비교하여 $\sqrt{AVE} > \rho$ 여부를 확인하였다. <표 3>에서 대각선에 적힌 값이 \sqrt{AVE} 값이고 상하, 좌우로 비교하여 \sqrt{AVE} 값을 초과하는 상관계수가 없으면 판별타당성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을 때, 전체적으로 수용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판별타당성 검증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판별타당성 검증 결과

측정 변수	내적 동기	외적 동기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창업 의도
내적 동기	.892					
외적 동기	.106	.819				
태도	.617	.012	.815			
주관적 규범	.469	.163	.534	.709		
지각된 행동통제	.610	.136	.561	.562	.694	
창업 의도	.623	.128	.726	.641	.718	.865

대각선 값 : AVE의 제곱근 값

4.3 가설 검증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을 살펴보면 $\chi^2=270.313$, $df=191$, $p=.000$, $\chi^2/df=1.415$, $RMR=.057$, $RMSEA=.041$, $GFI=.909$, $AGFI=.879$, $NFI=.933$, $CFI=.979$, $TLI=.975$ 로서 전체적으로 수용할 만한 수준의 적합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검증 결과 창업에 대한 내적 동기는 창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모두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가설 H1-1, H1-2, H1-3은 채택되었다. 반면에 창업에 대한 외적 동기와 관련된 3개의 가설 H2-1, H2-2, H2-3는 모두 기각되었다.

그리고 창업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는 모두 창업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가설 H3, H4, H5는 채택되었다. 가설 검증 결과는 <표 6>과 같다.

창업에 대한 태도가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창업교육

의 조절효과를 Process 3.4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48.3%이고 모형 적합도는 $F=74.675$, $p=.000$ 으로 적합한 모형으로 확인되었다. 조절 변수인 창업 교육은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고, 상호작용 변수의 계수값은 .268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상호 작용 항을 투입한 결과 R^2 가 1.1% 증가하였고, $F=5.313$, $p=.022$ 로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창업에 대한 태도가 창업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조절 변수인 창업 교육을 투입해서 태도와 창업교육의 상호작용항과 창업 의도와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창업에 대한 주관적 규범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창업교육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모형의 설명력은 32.9%이고 모형 적합도는 $F=39.158$, $p=.000$ 으로 적합한 모형으로 확인되었다. 조절 변수인 창업 교육은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고, 상호작용 변수의 계수값은 -.313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상호 작용 항을 투입한 결과 R^2 가 1.2% 증가하였고, $F=4.297$, $p=.039$ 로 이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창업에 대한 주관적 규범이 창업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조절 변수인 창업 교육을 투입해서 주관적 규범과 창업교육의 상호작용항과 창업 의도와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조절 변수인 창업교육은 창업에 대한 주관적 규범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창업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가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창업교육이 유의한 조절효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창업교육의 조절효과 검증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6> 인과관계 가설 검증 결과

가설	경로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S.E	C.R.	p값	결과
H1-1	내적 동기 → 태도	.613	.444	.052	8.582	***	채택
H1-2	내적 동기 → 주관적 규범	.458	.297	.051	5.846	***	채택
H1-3	내적 동기 → 지각된 행동통제	.617	.470	.061	7.710	***	채택
H2-1	외적 동기 → 태도	-.010	-.011	.064	-.167	.868	기각
H2-2	외적 동기 → 주관적 규범	.130	.123	.065	1.885	.059	기각
H2-3	외적 동기 → 지각된 행동통제	.070	.078	.069	1.121	.262	기각
H3	태도 → 창업 의도	.389	.529	.087	6.096	***	채택
H4	주관적 규범 → 창업 의도	.222	.336	.095	3.554	***	채택
H5	지각된 행동통제 → 창업 의도	.387	.499	.090	5.536	***	채택
모형의 적합도		$\chi^2=270.313$, $df=191$, $p=.000$, $\chi^2/df=1.415$, $RMR=.057$, $RMSEA=.041$, $GFI=.909$, $AGFI=.879$, $NFI=.933$, $CFI=.979$, $TLI=.975$					

<표 7> 창업교육의 조절효과 가설 검증 결과

가설	경로	coef	t	LCL	UCL	통계량	결과	
H6-1	태도 → 창업 의도	상수	.07	5.49	.68	1.45	△R ² =.011 F=5.313 p=.022	채택
		태도	.62	10.35	.50	.74		
		창업교육	-.93	-2.12	-1.79	-.06		
		상호작용항	.26	2.30	.03	.49		
H6-2	주관적 규범 → 창업 의도	상수	.69	2.42	.13	1.26	△R ² =.012 F=4.297 p=.039	채택
		주관적 규범	.83	8.23	.63	1.03		
		창업교육	1.28	2.81	.38	2.18		
		상호작용항	-.31	-2.07	-.61	-.01		
H6-3	지각된 행동통제 → 창업 의도	상수	.54	2.21	.05	1.02	△R ² =.000 F=.359 p=.549	기각
		지각된 행동통제	.87	10.34	.70	1.04		
		창업교육	.33	.70	-.60	1.28		
		상호작용항	-.08	-.59	-.37	.19		

V. 결론

5.1 연구결과

본 연구는 계획된 행동이론을 중심으로 시니어들의 창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창업교육의 조절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자기결정 이론을 중심으로 시니어들의 창업에 대한 내적 동기가 창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에 영향을 미치지만, 외적 동기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첫째, 창업 동기 중에서 내적 동기는 창업에 대한 태도(가설 H1-1), 주관적 규범(가설 H1-2), 지각된 행동통제(가설 H1-3)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1-1~H1-3은 채택되었다.

둘째, 창업에 대한 외적 동기는 창업에 대한 태도(가설 H2-1), 주관적 규범(가설 H2-2), 지각된 행동통제(가설 H2-3)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2-1~H2-3는 기각되었다.

셋째, 창업에 대한 태도는 창업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3은 채택되었다.

넷째, 창업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창업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4는 채택되었다.

다섯째, 창업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는 창업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5는 채택되었다. 첫째에서 다섯째 연구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Luqman et al., 2018; Lee et al., 2020; Li & Wu, 2019; Hagger & Chatzisarantis, 2009; 김진희 외, 2019)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섯째, 창업 교육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창업에 대한

태도가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창업교육은 유의한 정(+)의 조절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6-1은 채택되었다. 이 결과를 통해 창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시니어들의 경우, 창업교육을 받은 후에 창업 의도가 더욱 높아졌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창업에 대한 주관적 규범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창업 교육은 유의한 부(-)의 조절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6-2는 채택되었다. 즉, 조절 변수인 창업교육은 창업에 대한 주관적 규범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창업을 지지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던 시니어들이 창업교육을 받은 경우에, 창업교육을 받지 않은 시니어들보다 창업 의도의 증가폭이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가족이나 친구들이 창업을 반대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던 시니어들이 창업교육을 받고나서, 창업교육을 받지 않은 시니어들보다 창업 의도의 감소폭이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창업교육의 역할이 가족이나 친구들의 영향력을 감소시킨다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로 나타났다. 가설 H6-1과 H6-2는 기존의 선행연구(Shah et al., 2020)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창업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가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창업교육이 유의한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가설 H6-3은 기각되었다. 즉, 시니어들이 창업을 하는 것이 어렵거나 쉽다고 인지하는 정도가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창업교육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설 H6-3이 기각된 것도 흥미로운 결과였는데, 기존의 선행연구(Shah et al., 2020)의 연구 결과는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창업교육이 유의한 정(+)의 조절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창업을 하는 것이 어렵거나 쉽다고 인지하는 정도가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창업교육을 받은 후에 더욱 강화되는 반면, 사회생활 경험이 많은

40대와 50대 시니어들의 경우에는 창업교육을 받기 전과 후에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2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의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론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첫째, 계획된 행동이론을 중심으로 창업 의도를 연구했던 선행연구들이 많이 있지만, 계획된 행동이론만을 적용했을 때의 한계점을 느꼈던 건강 분야, 스포츠 분야 등 다른 학문분야에서는 자기결정 이론의 내적 동기(Autonomous Motivation)의 중요성을 연계하여 계획된 행동이론과 자기결정 이론의 통합모델을 활발히 연구해 왔다. 그러나 창업 분야에서는 계획된 행동이론과 자기결정 이론의 통합모델을 적용한 연구가 해외에서도 최근에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기 시작했고(Al-Jubari et al., 2019), 국내에서는 김진희 외(2019)의 연구 외에는 찾기가 어려웠다. 이에 창업 분야에서 아직은 연구의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는 계획된 행동이론과 자기결정 이론의 통합모델을 적용하여, 건강 분야 등 다른 학문분야에서 검증된 이론이 창업 분야에서도 유의함을 검증했다.

둘째, 시니어 창업의 경우에도 창업이 즐겁고 기쁜 일이기 때문에 창업을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Autonomous Motivation)를 가진 창업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40대, 50대 시니어들이 다니던 직장을 퇴직한 후에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로 부터 창업을 하도록 압력을 받아서, 혹은 창업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창업을 하고자 하는 외적 동기(Controlled Motivation)를 가진 창업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검증하였다. 이 결과는 자기결정 이론을 연구한 선행연구(Deci & Ryan, 2000; Hagger & Chatzisarantis, 2009)의 결과들을 실증적으로 지지하였다.

셋째, 최근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근무했던 40대, 50대 시니어들이 직장에서 퇴직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이들이 창업에 관심을 가지면서 시니어 창업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대학생 창업과 청년 창업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던 반면, 시니어 창업에 특화된 연구는 아직 크게 활성화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최근에 활발해진 시니어 창업에 중점을 두어 내적 동기와 창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와 창업 의도 간의 영향이 시니어 창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 유의한 이론임을 확인하였다.

넷째, 창업교육을 조절 변수로 도입하여 창업 의도에 대한 조절역할을 확인한 결과 창업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또한 지각된 행동통제가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는 창업교육이 유의한 조절역할을 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회생활 경험이 많지 않은 대학생들이나 20대 청년들과는 달리, 사회생활 경험이 많은 40대와 50대 시니어들에게도 창업교육이 유의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퇴직한 시니어들이 생계형 창업에 뛰어들고 있는데, 창업 기업의 5년 생존율은 30%정도에 그칠 정도로 창업의 성공확률이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창업 의도뿐 아니라 창업 성공을 높이는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창업을 하는 경우에 내적으로 동기가 부여되어 창업을 한 사람들은 지속 가능성이 더 높고, 성과가 더 좋다는 자기결정 이론에 따라서, 창업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창업을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가 높은 예비창업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0~30대 청년 창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실패했을 때의 리스크가 큰 40~50대의 시니어들이 창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자신들의 창업에 대한 동기를 진단해 봄으로써 창업에 무작정 뛰어들어서 실패하는 경우들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시니어 창업의 경우 창업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행동통제가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높고, 창업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생활 경험이 풍부한 40대와 50대 시니어들이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고, 창업에 대한 태도와 창업을 하는 것이 어렵거나 쉽다고 인지하는 정도가 창업 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100세 시대에 40대, 50대에 퇴직한 시니어들에게 인생 이모작의 선택들 중 하나로서 창업 의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창업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행동통제를 높여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최근에 많은 지자체에서 3개월이나 6개월간의 귀농·귀촌을 직접 체험해본 후에 귀농·귀촌을 결정할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시니어들을 위한 창업 관련 프로그램으로서 참모할만한 사례가 될 것이다.

셋째,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창업교육이 창업 의도에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때 창업에 대한 태도와 창업 의도 간에는 창업교육이 강화효과를 미치는 반면에, 창업에 대한 주관적 규범과 창업 의도 간에는 창업교육이 완화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니어들의 창업 의도에 대한 사회적 영향은 창업교육을 받을수록 약화된다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확인하였다. 최근에 퇴직예정자와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여 퇴직 이후의 커리어 전환을 지원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기업에서 아웃플ACEMENT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재취업 관련 교육 뿐 아니라 창업 관련 교육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퇴직자들이 재취업에만 매달리다가 1년~2년이 지나면 장기 실업 상태로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창업 교육을 병행하여 퇴직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퇴직자들이 직장생활을 통해 얻은 지식, 경험, 역량을 사장시키지 않고 인생 이모작의 또 하나의 기회로 창업에 도전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5.3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의 연구결과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에 향후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계획된 행동이론과 자기결정 이론의 통합모델을 바탕으로 서울, 경기 지역의 40대와 50대의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중소기업청은 40세이상, 60세이하의 연령층을 시니어라 칭하며 ‘시니어 창업육성 지원정책’을 추진했고(박선희, 2010), 이에 본 연구에서 40대와 50대를 시니어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다양한 지역 및 연령대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생 창업을 지원하는 대학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므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이다.

둘째, 자기결정 이론에서는 내적으로 동기가 부여되어 창업을 한 사람들이 창업을 했을 때 지속 가능성이 더 높고 성과가 더 좋다고 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창업 의도까지로 연구 범위를 설정했기 때문에 창업 활동으로 이어졌을 때의 지속 가능성과 성과를 검증해 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창업 의도 뿐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진 경우 즉 창업을 한 후까지로 연구 범위를 확장했을 때 지속 가능성과 성과를 검증해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연구 범위를 확장하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시니어 대상 창업교육은 여러 기관(시니어 기술창업센터, 50플러스재단 등)에서 다양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창업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창업교육 이수 시간만으로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창업교육의 효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관에서 운영하는 창업교육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전·후에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창업교육의 조절효과를 분석해 보거나, 창업교육 기관별 교육 커리큘럼의 특성 및 교육 방법을 반영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등 보다 많은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

김명숙·이재현·고종욱(2013). 시니어 창업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창업의지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1(3), 233-241.

김서호·변상해(2018). 예비창업자의 개인적 규범과 창업준비 수준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창업교육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3(1), 11-21.

김진희·이수범·이승우(2019). 외식 서비스업 종사자의 자기결정성 동기가 외식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외식경영연구*, 22, 163-184.

우종필(2012).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출판사.

박선희(2010.05.14). [정책파라잡기] 시니어 창업육성 지원정책. 창업경영신문, Retrieved from <http://sbiznews.com/news/?action=view&menuid=44&no=23093>.

한수진·이종건(2017). 개인적 특성, 주관적 규범, 창업의도 간의 관계에서 창업교육의 조절역할.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7, 503-511.

Ajzen, I.(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Ajzen, I.(2002).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selfefficacy, locus of control,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1.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2(4), 665-683.

Al-Jubari, I., Hassan, A., & Liñán, F.(2019). Entrepreneurial inten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Malaysia: integrating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15(4), 1323-1342.

Almobaireek, W. N., & Manolova, T. S.(2012). Who wants to be an entrepreneur? Entrepreneurial intentions among Saudi university students. *African Journal of Business Management*, 6(11), 4029-4040.

Andersen, S. M., Chen, S., & Carter, C.(2000). Fundamental human needs: Making social cognition relevant. *Psychological inquiry*, 11(4), 269-275.

Asghar, M. Z., Gul, F., Hakkarainen, P. S., & Tasdemir, M. Z.(2019). Valida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s Questionnaire to Assess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Egitim ve Bilim*, 44(197).

Autio, E., H. Keeley, R., Klofsten, M., GC Parker, G., & Hay, M.(2001). Entrepreneurial intent among students in Scandinavia and in the USA. *Enterprise and Innovation Management Studies*, 2(2), 145-160.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

Bandura, A.(1982).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2), 122.

Bird, B., & Jelinek, M.(1989). The operation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3(2), 21-30.

Deci, E. L., & Ryan, R. M.(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4), 227-268.

do Paço, A. M. F., Ferreira, J. M., Raposo, M., Rodrigues, R. G., & Dinis, A.(2011). Behaviour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Empirical findings about secondary students. *Journal of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9(1), 20-38.

Douglas, E. J.(2013). Reconstruc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s to identify predisposition for growth.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8(5), 633-651.

Douglas, E. J., & Fitzsimmons, J. R.(2013). Intrapreneurial intentions versus entrepreneurial intentions: distinct constructs with different antecedents. *Small business economics*, 41(1), 115-132.

Entrialgo, M., & Iglesias, V.(2016). The moderating role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the antecedent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12(4), 1209-1232.

Fayolle, A., Gailly, B., & Lassas-Clerc, N.(2006a). Assessing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mes: a new methodology. *Journal of European industrial training*.

- Fayolle, A., & Liñán, F.(2014). The future of research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7(5), 663-666.
- Fayolle, A., Liñán, F., & Moriano, J. A.(2014). Beyo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values and motivations in entrepreneurship.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10(4), 679-689.
- Fernández-Pérez, V., Montes-Merino, A., Rodríguez-Ariza, L., & Galicia, P. E. A.(2019). Emotional competencies and cognitive antecedents in shaping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 the moderating role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15(1), 281-305.
- Fitzsimmons, J. R., & Douglas, E. J.(2011). Interaction between feasibility and desirability in the formation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6(4), 431-440.
- France, C. R., France, J. L., Carlson, B. W., Himawan, L. K., Kessler, D. A., Rebosa, M., & Slepian, P. M.(2017). A motivational interview promotes retention of blood donors with high internal motivation. *Transfusion*, 57(10), 2433-2439.
- García-Rodríguez, F. J., Gil-Soto, E., Ruiz-Rosa, I., & Sene, P. M.(2015). Entrepreneurial intentions in diverse development contexts: A cross-cultural comparison between Senegal and Spain.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11(3), 511-527.
- Hagger, M. S., & Chatzisarantis, N. L.(2009). Integrat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and self-determination theory in health behaviour: A meta-analysis. *British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4(2), 275-302.
- Hagger, M. S., Chatzisarantis, N. L., & Harris, J.(2006). From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to intentional behavior: Testing a motivational sequence in two behavioral contex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2(2), 131-148.
- Han, S. J., & Lee, J. K.(2017). Moderating Role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the relationship among Individual Characteristics, Subjective Norm,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7, 503-511.
- Hayes, A. F.(2017).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Guilford publications.
- Hessels, J., van Gelderen, M., & Thurik, R.(2008). Drivers of entrepreneurial aspirations at the country level: the role of start-up motivations and social security.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4(4), 401-417.
- Kim, J. H., Lee, S. B. & Lee, S. W.(2019). Start-up Intention through the Integration of Self-determination and Goal-oriented Theory. *Journal of Food Service Management Society of Korea*, 22, 163-184.
- Kim, S. H., & Byun, S. H.(2018). The Effect of Pre-entrepreneur's Individual Norm and Start-up Preparation Level on a Start-up Intention: Focusing on a Moderation Effect in Start-up Educa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3(1), 11-21.
- Kautonen, T., Van Gelderen, M., & Tornikoski, E. T.(2013). Predicting entrepreneurial behaviour: a test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Applied Economics*, 45(6), 697-707.
- Kim, M. S., Lee, J. H., & Ko, J. W.(2013). The Effectiveness of the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 for Seniors and the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1(3), 233-241.
- Kolvereid, L.(1996a). Organizational employment versus self-employment: Reasons for career choice inten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0(3), 23-31.
- Krueger Jr, N. F., Reilly, M. D., & Carsrud, A. L.(2000). Competing model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5(5-6), 411-432.
- Lee, A. S., Yung, P. S.-H., Mok, K.-M., Hagger, M. S., & Chan, D. K.(2020). Psychological processes of ACL-patients' post-surgery rehabilitation: A prospective test of an integrated theoretical model. *Social Science & Medicine*, 244, 112646.
- Li, C., & Wu, Y.(2019). Understanding voluntary intentions within the theories of self-determination and planned behavior. *Journal of Nonprofit & Public Sector Marketing*, 31(4), 378-389.
- Li, C., Wu, Y., & Kee, Y. H.(2016). Validation of the Volunteer Motivation Scale and its relations with work climate and intention among Chinese volunteers.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9(2), 124-133.
- Liao, J. J., & Gartner, W. B.(2007). The influence of pre-venture planning on new venture creation. *Journal of small business strategy*, 18(2), 1-22.
- Liñán, F., & Chen, Y. W.(2009). Development and cross-cultural application of a specific instrument to measure entrepreneurial inten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3(3), 593-617.
- Liñán, F., & Fayolle, A.(2015).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citation, thematic analyses, and research agenda.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 Management Journal*, 11(4), 907-933.
- Liñán, F., Urbano, D., & Guerrero, M.(2011). Regional variations in entrepreneurial cognitions: Start-up intentions of university students in Spain. *Entrepreneurship and Regional Development*, 23(3-4), 187-215.
- Luqman, A., Masood, A., & Ali, A.(2018). An SDT and TPB-based integrated approach to explore the role of autonomous and controlled motivations in "SNS discontinuance intention". *Computers in Human Behavior*, 85, 298-307.
- Moriano, J. A., Gorgievski, M., Laguna, M., Stephan, U., & Zarafshani, K.(2012). A cross-cultural approach to understand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9(2), 162-185.

- Nabi, G., Liñán, F., Iakovleva, T., Kolvereid, L., & Stephan, U.(2011). *Entrepreneurial intentions in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Education+Training.
- Naktiyok, A., Karabey, C. N., & Gulluce, A. C.(2010).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the Turkish case.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6(4), 419-435.
- Park, S. H.(20100514). *[Policy Catch] Policy to Support Senior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Start-up Management Newspaper, Retrieved from <http://sbiznews.com/news/?action=view&menuid=44&no=23093>.
- Rauch, A., & Hulsink, W.(2015). Putting entrepreneurship education where the intention to act lies: An investigation into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behavior. *Academy of management learning & education*, 14(2), 187-204.
- Shah, I. A., Amjed, S., & Jaboob, S.(2020). The moderating role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shaping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Economic Structures*, 9(1), 1-15.
- Shook, C. L., & Bratianu, C.(2010). Entrepreneurial intent in a transitional economy: an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o Romanian students.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6(3), 231-247.
- Souitaris, V., Zerbinati, S., & Al-Laham, A.(2007). Do entrepreneurship programmes rais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science and engineering students? The effect of learning, inspiration and resourc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2(4), 566-591.
- Tkachev, A., & Kolvereid, L.(1999). Self-employment intentions among Russian students. *Entrepreneurship & Regional Development*, 11(3), 269-280.
- Wilson, F., Kickul, J., & Marlino, D.(2007). Gender,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s: Implications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1(3), 387-406.
- Wilson, P. M., Rodgers, W. M., Blanchard, C. M., & Gessell, J.(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Needs, Self-Determined Motivation, Exercise Attitudes, and Physical Fitness 1.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3(11), 2373-2392.
- Woo, J. P.(2012). *Concepts and Understanding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Seoul: Hannarae Publishing Co.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for Seniors on Entrepreneurship Intention: Integrat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Self-determination Theory

Chung, Chan-Young*
Lee, So-Young**

Abstract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ffect of seniors in their 40s and 50s on their entrepreneurial intentions through attitude on entrepreneurship, subjective norms,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by utilizing the integrated model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self-determination theory. Also, in this process, we tried to analyze moder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for senior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for seniors in their 40s and 50s living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out of the total 284 questionnaire responses, 243 valid questionnaires were used in the study. Research analysis utilized SPSS 24, AMOS 23 structural equation model and Professor Hayes' Process 3.4 to analyze moderating effect.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utonomous motivation had a positive influence on attitude toward entrepreneurship, subjective norms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But controlled motivation didn't have the significant influence on attitude, subjective norms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Second, attitude toward entrepreneurship, subjective norms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had positive influence on entrepreneurship intention.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moder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for seniors, the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was verified between attitude and entrepreneurship intention. Also the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was verified between subjective norms and entrepreneurship intention. On the other hand, no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was proved between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nd entrepreneurship intention.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for retired seniors planning to enter into entrepreneurship, the result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 entrepreneurship support program that can increase new startup creation, survival and success by diagnosing autonomous and controlled motivation for entrepreneurship. In addition, by providing entrepreneurship education as well as re-employment training in the senior outplacement program, the study can contribute to widening the opportunities for seniors to second career after retirement.

Keywords: Senior Entrepreneurship, Theory of Planned Behavior, Self-determination Theory, Motivation for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ship Intention,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 First Author, Doctoral Program, Dept. of Information Management, Hoseo Graduate School of Venture, cychung@korea.ac.kr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t. of Information Management, Hoseo Graduate School of Venture, claire@hoseo.edu